금주의 법구-〈화엄경〉
성불하려는 마음 굳으면
의심하지 말고 꼭 믿어라.
붓다의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5일)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영미!" 대신 명상 찾은 컬벤저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대한민국 안방을 뒤흔든 유행어 "영미~!"로 '국민 영미'를 탄생시킨 여자컬링 대표팀이 3월 12일 의성 고운사에 떴다. 이들이 사찰을 찾아온 까닭은 단 하나. 5년 전, 고운사에서 명상을 배우며 다졌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주지 호성 스님은 선수들과 함께 명상하며 "힘든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선수들은 사부대중의 환영에 감사인사를 남긴 뒤 캐나다서 열리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로 향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조계종 상반기 출가 55명 '출가 절벽' 가속화 우려

한해 출가 120명 '위태'… 종단적 대책 시급

출가자 감소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어 종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1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제54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을 회향했다.

수계교육은 지난 3월 5일 입재해 10일 동안 진행됐으며, 13일 열린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남 · 녀 행자들이 각각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비 스님이 된 행자는 사미 33명, 사미니 22명 등 총 55명이다.

조계종은 매년 상 · 하반기에 걸쳐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55기 수계교육 신청자는 70명 안팎이다. 하지만 27%의 평균 퇴사율을 감안하면 54기와 인원 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해 출가 인원이 120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출가자 감소는 지속적인 문제지만, 최근 들어 그 예우가 더 좋지 않다. 우선 출가자 감소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했다. 2016년에는 157명으로 처음 150명대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이후 단 2년 만에 120명 선도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또한 출가자 고령화도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가자 중 40대 이상 출가자는 78명으로 이는 전체 출가자의 49.6%에 달하는 수치다. 40대 이상 출가자들이 늘어나는 출가 고령화는 승단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2016년을 출가진흥 원년으로 삼고 출가 콘서트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을 펼쳤다. 지난 연말에는 종단 사상 최초 출가자 모집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가자 감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종책을 고민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이 종단적 T/F 구성들을 요구해왔고, 총무원장 설정 스님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사업 계획으로 '출가

감소 · 고령화 추세 뚜렷
출가T/F 구성 논의 無
실효 · 지속적 종책 필요

T/F' 구성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출가자 감소 추이를 보면 1~2년 후에는 한해 출가자가 100명도 안될 수 있다. 더불어 출가자 고령화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출가자가 많지 않다"면서 "종단 차원의 '출가 T/F' 구성을 통해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출가 종책 방향을 정하고, 질 높은 인재들이 교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제54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모습.

통일 기금 · 교육… 실천 가능 로드맵 필요

[현안진단] 불교 통일 로드맵 'Up-Grad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9년 첫 로드맵 발표
2014년 로드맵 2.0 완성
남북 경색으로 모두 무산
통일인식 개선 교육 등
정세 무관 진행 가능해야
협력기금 조성해 장기대비

남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이어 준비위 구성 등 후속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민간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중국 심양에서 회동을 제안한 상태로 남북 정부간 협의 후 본격적으로 남북불교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통일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정세에 영향받지 않는 기금 조성 등 준비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차례 통일로드맵 발표

앞서 불교계는 조계종이 2009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통일로드맵을 발표했다. 2009년 조계종 통일종책연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경색 국면에서 종책보고서 〈민족통일과 불교통합: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통일종책연구위는 2년간의 연구 끝에 △남북불교 상호인정 및 교류협력 △불교도왕래 및 남북불교종단협의회 등 조직구성 △통일종단 · 종법 구성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14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가 사회와 불교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작업 끝에 '민추본 2.0' 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번째 로드맵에는 △북한 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통일의식 확산사업 △대북인도적 지원 △남북불교 경협 사업 △남북불교교류 컨설팅 서비스 △북한불교문화재 공동보존사업 등이 제시됐다.

남북 경색에 모두 무산

하지만 이러한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 로드맵은 10년간의 남북 경색 국면 속에 모두 무산된 상황이다.

2014년 발표된 로드맵 계획인 주요지역 교류거점 사업의 경우 1단계 금강산 관광 재개시 신계사 운영 정상화, 2단계 2015년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3단계 2016년 개성지역 사찰 불사 등이 있었다. 또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사업의 경우 1단계 2015년 내금강 불교문화유적 보수보존, 2단계 2016년 개성지역 불교문화유적 보존보수, 3단계 2017년 북한 전통사찰 남북공동전수조사사업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계획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박재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불교 교류 사업은 남북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 민간교류를 우리 정부에서 허가하더라도 북측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세부적인 로드맵 계획은 실제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두 차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원인은 남북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부침과 별도로 진행되는 통일 종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 등은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남북 정세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또 조계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을 포함한 범불교적인 종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기금 · 자원 확보 나설 때

로드맵 실천 문제와 함께 현재 불교계는 교류 및 통일 과정에 대비한 자원 확보가 전무하다. 정부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남북교류와 통일 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13조 8137억 원이 조성된 상태다. 협력기금은 통일 후에는 통일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은 민추본을 단일 창구로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단 예산 편성과 구미 도리사 인근 경작지에 통일쌀을 심어 쌀 수매 이익 일부분을 대북 인도지원과 자원으로 활용해왔다.

천태종 등 불교 각 종단도 각각의 기관 예산 편성을 통해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JTS 등 불교계 NGO단체서 진행되는 후원 캠페인도 남북정세에 따라 후원 집행의 애로점이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톨릭 등 이웃종교계의 경우 이북 교구 설립 계획과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가 그동안 민간교류에 앞장 섰지만, 남북불교교류 외에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관성 있는 교류와 통일사업의 근간이 될 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방세계 A5
태고종 전북종무원 영산문화축제
함께가요 강의실 A6
초서란 무엇인가… 양진석 연구원

번煩뇌惱를 끊는 이야기
- 간화선看話禪의 길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사람 성품性品에는 본시 번뇌가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이는
날마다 번뇌를 보듬고 산다.
이 책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지키고 있는 이에게 '뜬 눈'을 갖게 할 것이다.
현응玄雄 스님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용화사 전강田岡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았다. 그 후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하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냈다. 1984년 스위스 불승사에서의 초청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지도하였다. 2005년 한국에 돌아와 서울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후학 현응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